

현대사회의 문제와 명상치유

박 성 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2000년대 이후 영성, 심신수련, 웰빙, 자기 계발 등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문화 코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흐름의 주요 특징은 전통 종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다양한 수련법들의 세속화(대중화) 혹은 개인화라고 할 수 있다. 명상은 21세기 새로운 문화조류를 타고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은 이 시대에 명상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종교의 기능은 역사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 종교의 변천사는 변화하는 시대적 맥락과 과제에 대응하려는 역사이다. 현대사회는 전근대나 근대사회와는 전혀 다른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교의 사명과 기능 및 양상 또한 변모하고 있다. 명상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현대사회의 특징과 문제를 짚어보고, 명상의 현대적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이다. 또한, 명상의 세속화와 개인화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의 건설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 교신저자 :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70길 8
E-mail : gchio@hanmail.net

명상은 인도의 힌두교나 동아시아의 불교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대교의 까발라, 기독교 신비주의와 관상 기도법, 이슬람교의 수피즘 등 유신론적 종교에서도 신의 현전을 체험하기 위한 명상법이 있었다. 전 세계적 수준에서 명상의 세속화(대중화)를 촉발하게 된 역사적 계기는 20세기 이후 서구사회에 불어 닥친 뉴에이지(New Age)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뉴에이지 운동은 1960년대 미국의 젊은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종의 문명저항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자본주의화에 따른 물질주의와 인간소외, 전통적 종교(기독교)와 가치의 권위 상실에 따른 삶의 목적과 의미의 상실 등이 뉴에이지 운동의 사회적 배경이었다. 이에 따라, 서구인들은 동양의 심신 수련법들에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심신 수련은 동양 전통의 종교적 수련과 사뭇 다른 양식을 취했다. 이들은 제도적인 종교적 제의나 규범적인 교리에 따르기 보다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영성 체험에 바탕을 둔 개인적 변형(personal transformation)에 초점을 둔다. 또한, 단순한 믿음이나 신앙 차원을 넘어 과학과 영성이 결합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수행을 강조한다.

1960~80년대 동아시아는 경제 발전과 산업화에 몰두했던 시기였다. 산업화라는 국가적 과제가 어느 정도 달성된 후,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서구의 뉴에이지 운동과 유사한 정신세계 혹은 신영성운동이 일어났다. 신영성운동의 특징 또한 교조나 조직에 얽매인 전통 종교를 탈피하여 체험을 통한 개인 중심의 영성을 개발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명상, 요가, 신비주의, 의식의 변용과 각성, 영적 진화, 종교와 과학의 통합 등이 주요 주제였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다양한 구도 서적과 심신수련 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라즈니쉬, 크리슈나무르티 등 인도 요기들의 사상이 소개되고, 기수련, 요가, 참선 등의 수련법들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출발한 뉴에이지 운동은 산업화와 자본주의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에 저항하며 “본래의 자기” 혹은 “진정한 자기”의 실현을 위해 영적 수련을 추구하는 문화운동이다. 뉴에이지 운동은 신비적, 상업적, 비과학적이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종교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흐름이 전 지구적 수준에서 새로운 종교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영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 현대사회

현대사회를 정의하는 몇 가지 용어들에는 후기 자본주의사회/후기 산업사회, 탈근대화(포스트 모더니즘), 글로벌라이제이션, 정보화시대 등이 있다. 근대사회의 세계관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합리주의와 관찰 가능한 영역만을 실제로 인정하는 실증주의로 대표된다. “뉴턴-데카르트적” 세계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근대정신은 종교로부터 학문의 분화, 자연과학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근대로부터 인간의 영성은 “전근대적인 신화적 개념”으로 취급되고, 종교적 체험이나 영적 현상들은 과학과 이성의 영역에서 추방되었다. 동양의 정신문화

는 계몽되지 못한 미개한 정신 수준으로 치부되고, 자기 초월에 대한 수련법들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낙오자들의 퇴행적 도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근대정신의 성과는 산업화와 자본주의 시장의 성공으로 이전 역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물질적 풍요와 여유를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 비인간화, 인간소외, 전통 가치의 붕괴, 빈부의 격차, 환경의 파괴, 전쟁과 폭력 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제들이다. 심리학 영역에서 근대정신의 총아는 고전 정신분석과 행동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고전 정신분석은 이성을 통해 생물학적인 추동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동주의에서의 인간은 학습과 조건화에 의해 형성되는 동물과 별반 차이가 없다.

후기 자본주의 혹은 후기 산업사회는 제국주의적인 독점 자본주의나, 국가 중심의 독점 자본주의 단계를 넘어 다양한 신념과 가치 및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과 시민들이 상호 교류하는 시장을 통해 상품과 문화가 재생산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전의 자본주의 사회는 국가나 체제 유지 차원의 부의 축적을 위해 제 3세계와 시민에 대한 착취와 희생을 강요하였고, 집단적 이데올로기(그것이 친국가적이던 반국가적이던)가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였던 시대였다. 반면,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기호와 취향이 주 상품이 되는 시대이며,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적 차원의 개별성 확보의 문제가 된다. 정보화와 세계화는 후기 자본주의의 발달과 궤를 같이한다. 정보화와 세계화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동질적인 문화와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전 지구적 규모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차별성을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사회의 이성중심주의, 서구중심주의, 과학만능주의(실체론적 세계관), 관료화된 국가주의, 집단적 이데올로기의 폐해를 지적하며, 고정된 이념으로부터의 자유, 탈제도화, 문화적 다원주의, 개별성의 강조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도래에 따른 다원주의와 개별화의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1960년대 서구사회에 불어 닥친 뉴에이지 운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 영역에서도 1960대에 인본주의 운동, 인간 잠재력 개발 운동, 자아초월심리학 등이 등장하였는데, 이 또한 근대적 세계관에서 소외된 인간의 신체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영성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성을 초월한 직관과 정서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전통을 존중하며, 근대에서 소외된 인간의 영성을 회복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현대 한국사회는 여전히 산업화와 독점 자본주의의 잔재가 남아있으나, 90년대 이후 위에서 간략한 후기 자본주의 사회, 탈 근대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개인의 욕망의 실현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요구되었던 80년대 이전과는 다르게 80년대 말부터 한국사회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풍요를 성취하면서 개인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물질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일반 대중의 관심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욕망의 실현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러한 변동은 한국사회의 성격이 후기 자본주의의 사

회의 문화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 현대사회와 영성

후기 자본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독일의 사회철학자 아놀드 겔렌(Arnold Gehlen)은 탈근대 사회의 탈제도화 경향은 개인의 “주관주의화(subjectivization)”를 불러온다고 한다. 근대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했던 집단적 이데올로기나 전통적 가치가 붕괴되면서, 개인은 집단적이고 타의에 의해 부과된 정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한편, 스스로의 힘으로 차별화된 개성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을 지게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자기 성찰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주관주의화는 자신의 “자아”에 대한 탐구와 개인중심의 문화가 확산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종교사회학자인 폴 힐라(Paul Heela)와 린다 우드헤드(Linda Woodhead)는 현대사회에서 “주관적 전환(subjective turn)”이야말로 현대 영성의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주관적 전환”은 내적인 행복에 대한 추구를 강조한다. 사람들의 관심이 생존의 책무나 사회적 책무(종교적 책무를 포함하여)로부터 개인적 행복이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영성이나 명상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체험”을 통하여 주관적 만족감이나 개인적 혹은 영적 성장을 지향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조직적인 종교보다는 개인적 영성을 추구하고, 믿음으로서의 영성보다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영성을 원한다. 1989년 미국의 한 뉴에이지 잡지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종교와 영성이 다르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80%에 달했으며, 자신이 ‘종교적’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40%에 불과한 반면, 자신이 ‘영성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94%에 달했다. 미국에서 이뤄진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종교적이면서 영적이라고 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성과 종교성은 제한적인 수준($r=.21$)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신이 종교적이지 않고 오직 영적이라고만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0%나 되었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종교성과 영성은 겹치긴 하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41.7%, “영성은 종교성보다 더 폭넓은 개념이며, 종교성을 포함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8.8%에 이르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영성과 종교성은 둘 다 보다 높은 힘에 대한 믿음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종교성은 영성과는 달리 조직화된 형태의 수행, 집단, 신앙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20세기 후반 들어 교회의 출석률이 줄어들었지만, “영적(spiritual)”이라 간주되는 수행들은 계속해서 대중에게 널리 퍼졌으며, 미국 심리학회와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자신에게 영성 혹은 종교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항에서 3이상(Likert 5점 척도)에 체크한 비율이 종교 46%, 영성 82.3%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이는 영성이 대중 뿐

아니라 심리학계 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현대사회에서 종교=영성이라는 등식이 깨졌을 뿐 아니라 차츰 개인적 영성이 제도적 종교를 대체하고 있는 변모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적 성찰과 영성의 추구 양상은 “몸의 재발견”으로 나타난다. 운동, 식이요법, 채식, 대체요법, 건강식품, 친환경 먹거리,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심신수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심신수련의 대표적인 방법에는 요가, 명상, 기공 수련, 마인드 컨트롤 등이 있다. 개인적 영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완전한 건강’은 신체의 단련 뿐 아니라 마음 혹은 의식의 각성과도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몸과 마음의 치유 체험이나 주관적인 안녕감이 영성 체험과 거의 동일시 된다. 내세적 구원론이 아니라 현세적 구원론을 표방하며, 과학과 영성이 통합된 새로운 영성을 주장한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 2000년대 들어 등장한 웰빙(well-being)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사회적 조류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웰빙 문화는 심신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생활양식으로서, 웰빙의 기법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수련법이다. 이제 명상을 포함한 종교적 수행법들은 제도적 종교 체계를 벗어나 심신수련단체나 문화센터에서 쉽사리 접할 수 있다. 웰빙과 자기 계발 혹은 개인주의적 영성체험에 대한 현대인들의 욕구가 종교적 수행을 세속화, 개인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조류의 원인으로는 기성 종교들이 양적 팽창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현대인들의 영적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점도 있겠으나, 현대인들의 “자기의 발견”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는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3. 현대사회의 영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 한국사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성의 세속화 혹은 개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모든 사태에는 양지와 음지가 있듯이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종교문화의 흐름 또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다.

심리학자 마슬로우(Maslow)는 현대인의 위기를 메타병리(meta-pathology)로 정의했다. 이는 자기 실현이나 자기초월 욕구와 같은 메타 욕구가 좌절됐을 때 나타나는 병리로서, 생물학적 수준의 안전에 대한 집착에서 발생하는 신경증적인 병리와는 다르다. 메타병리의 외현적 특징은 권태감이나 우울 등으로 우울증과 유사하나 내면적 특징은 존재 의미의 상실이다.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e) 또한 현대인들이 쾌락이나 권력 혹은 자기실현이라는 허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실존적이며 영적인 공허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병리를 영혼의 신경증(noogenic neurosis)라고 명명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물질적 빈곤이라는 생존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욕구의 위계설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영성 추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 욕구의 발현 과정이다.

현대인들은 물질적 욕망의 추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에 목말라 있다.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영적 욕구 상당 부분이 문화적 상품으로 소비된다는 사실이다. 심신수련단체는 치유와 영성이 결합된 다양한 영성 상품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현대인들에게 제공한다. 자기 정체성에 불안을 느끼는 현대인들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만족을 느끼고 안전한 자기감을 회복한다. 그러한 체험을 ‘진정한 자기’의 회복으로 ‘영성의 체험’으로 인식한다.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상태를 추구하는 웰빙적인 라이프스타일은 현대인의 고상하고 영적인 삶의 방식으로 추구된다. 주관적인 만족감과 안녕감이야말로 영성의 열매로 인식된다. 명상은 ‘고급의 문화상품’으로 포장되고 판매된다. 영적 상품들은 현대인들의 흔들리는 자기 정체성을 지켜주며,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켜준다. 영성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직된 종교의 속박을 벗어나, 진정 자유로운 영성의 수호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

이러한 현상을 자아초월심리학에서는 영적 나르시시즘과 영적 물질주의라고 칭한다. 종교적 전통에서 영성은 의식의 확장을 통한 개아의 초월 혹은 초월적 존재와의 합일을 통한 새로운 자기의 탄생을 의미한다. 영성의 열매는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초탈하여, 타인과 사회 그리고 생명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영성의 상품화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주의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는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연계된 자기-이미지를 판매한다. 상품의 소비는 “나는 소중하니까요” 라는 자기의 고양을 불러일으킨다. 소비주의의 논리와 몸과 마음의 안녕이라는 욕망에 의해 유지되는 영성 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영적 나르시시즘과 영적 물질주의이다. 영적 나르시시즘은 자기 정체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성이라는 고귀한 외피를 걸치는 태도이다. 영적인 실천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특별한 인간으로 생각하며 나약한 자기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영적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는 공격적인 영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공격적인 영성이란 자신의 신념이나 체험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 주장하며, 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경향이다. 영적 물질주의는 영적 중독과 유사한 용어로서 영적인 것에만 집착하며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고, 책임을 방기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영성 상품에 중독된 사람들은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거나, 완벽한 신체적 건강이나 아름다움, 긍정적인 정서로 충만한 내면을 가꾸는데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4. 현대사회에서 명상의 과제

명상의 세속화 혹은 개인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임에 틀림없다. 기성 종교들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반응하기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산사의 선방에서 전수되어 오던 참선법이 대중 선방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불교와 심리

학의 만남도 시대적 흐름을 따라잡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폭증하고 있는 심신수련단체와 영성 상품들은 현대인들의 자기 발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지만, 타인과 사회 그리고 생명을 도외시하고 자기-고양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명상의 사회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명상은 과학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심신의학(Mind/Body Medicine), 혹은 보완 대체 의학의 핵심적인 치료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상당수가 심리치료 기법으로 명상을 응용한 방법들(이완기법, MBSR, MBCT, ACT, DBT, 자애명상 등)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학과 임상심리학에서 명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뇌과학에서 명상 상태의 뇌파나 뇌활성도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명상을 포함한 영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협소한 유물론적 과학주의 입장을 견지하는 과학자들이다. 이들은 영적 신앙이나 명상이 실증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종교적 체험을 기존의 과학적 방법으로는 연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깨달음이나 영적 체험은 언어나 감각적 관찰을 통해 드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영성이나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 시도를 환원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영성이나 명상이 과학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보는 새로운 관점도 있다. 영성과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현 과학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영성이나 명상의 체험이 신체나 뇌의 활동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겸허한 태도를 취한다. 그렇지만, 현재 과학의 한계로 인해 보이지 않는 영역과 세계를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명상이 과학과 대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다. 명상의 근본 목적은 인간 고통의 근원적인 치유와 의식의 확장을 통한 개아의 초월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은 명상이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 인간의 심신 문제를 치유하는지를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명상이 신비주의적 수련법으로 알려진 것은 명상의 과정과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부재했을 당시의 이야기이다. 또한, 명상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나, 명상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 등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

둘째, 명상이 자기 패쇄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 속의 명상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명상의 궁극적 목표는 일상의 신비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타인과 사회 그리고 생명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회향하는 것이다.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명상의 참된 열매이다. 명상을 내면에 대한 탐구로만 한정하는 것은 명상의 건전한 사회화를 추구하는데 있어 지나친 제약이다.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명상은 팔정도에서 바른 집중(正定)과 바른 마음챙김(正念)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서양의 명상 치유에서도 주로 이 두 가지를 명상으로 한정한다. 명상은 사회적 윤리의 실천(戒)이나 진리에 대한 탐구(慧)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영성과 명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명운동, 환경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련의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명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일부 심신수련단체에서 보이는 지도자의 윤리적 문제나 구성원들에 대한 착취의 문제남녀 차별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영적 권위가 권력화되고 위계화됨으로써 영성 단체가 인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구속과 억압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정과 명확한 윤리적 지침, 깨끗한 회계 관리 등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선량한 요소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원고접수일자: 2011. 10. 07
수정원고 접수일자: 2011. 10. 30
게재결정일자: 2011. 11. 01